



Non-GMO 옥수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<주요 보도내용>

10월 12일(월) 머니투데이의 「러·우에 기댄 비GMO 옥수수 수급 빨간불」 기사에서는 ‘Non-GMO 옥수수의 러시아·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불안이 우려되며,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라 원료 수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’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농림축산식품부는 러시아·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업계의 원료 계약 및 도입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산 Non-GMO 옥수수를 수입하는 전분당 업계는 금년도 우크라이나산 계약물량의 약 84%를 이미 도입하였습니다. 또한 러시아 연해주산, EU산 등 대체 물량 확보도 추진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.

① Non-GMO 옥수수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원료 확보방안을 검토하고, 원료 구매 및 시설투자 등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②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수급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·업계·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·운영*('26.8월~)하고, 관련 연구용역('26.9~12)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TF구성: 농식품부, 농촌경제연구원, 식품산업관련 협회·업계, 학계 등

담당 부서	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	책임자	과 장	김민호 (044-201-2911)
		담당자	사무관	신소연 (044-201-2915)